

광주 신규 소각장 설치사업에 1곳 신청

3240억원 들여 2029년까지 소각장 완공 계획

광주시, 오는 23일까지 유치신청서 접수

광주시가 추진 중인 신규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에 1곳이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입이 금지된다. 광주시는 이에 대비한 소각장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다.

입지 선정을 위해 개인과 단체·5개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유치신청서를 받고 있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이날 현재 1곳이 유치신청서를 제

출했다.

광주시는 비공개 원칙에 따라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곳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5개 자치구가 아닌 개인 또는 단체인 것으로 보인다.

동구는 별도의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서구와 남구는 혐오·기피시설이라는 인식에 따른 민원 우려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북구도 신청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광산구는 조만간 열리는 5개 자치구 대상 설명회를 지

켜본 뒤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오는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3240억 원을 들여 면적 6만6000㎡ 이상 대지에 소각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소각장의 일일 처리량은 종량제 폐기물·음식물·재활용 잔재물·대형 폐기물 등 650t이다.

광주시는 여가공간을 함께 조성,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오염물질 최소화·에너지 활용 극대화 등을 통해 기피시설이 아닌 진화형시설로 구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공원과 각종 편의시설을 구비한 시설을 만든다는 것이다.

소각장 주변 주민 지원 방안은 폐기물 시설 축진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시설 공사비 20% 내에서 체육시설·문화공원·레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지원 기금을 통해 주민 소득증대·육영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대기오염물질 최소화 방안은 ▲최적 연소를 통한 다이옥신 생성 억제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 3~4단계 처리 ▲굴뚝원격감시체계(TMS)를 통한 주요 오염물질 감시 등이다. 오염물질 데이터는 소각장 주변에 전광판을 설치해 주민들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대표·의원·전문가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는 소각장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

김도기 기자

‘시원한 여름 즐기세요’ 나들이지도 제작

광주시, 여름꽃 명소 등 2023 여름 핫캥스 지도 만들어

광주시와 광주관광재단이 시원한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광주 도심 여름나들이 지도를 선보인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부터 이벤트를 통해 광주시민이 추천한 여름꽃 명소와 시원하게 여름나기 좋은 장소, 여름축제 등을 담아 낸 여름나들이 지도를 제작했다.

지도에는 ▲연꽃압축제·양산호수공원·전평제 근린공원 ▲농소화(일봉서원 너브실마을·각화제) ▲해바라기(광주천 둔치·양산호수공원) ▲배롱나무(국립광주박물관·지산재·수춘제) ▲백문동(문하근린공원) ▲수국(동적골 수국동산) 등 여름꽃 주요 명소가 담겼다.

지도는 광주시와 광주관광재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오매광주와 광주관광재단 공식 사화관

계명서비스(SNS)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시는 푸른 숲길과 시원한 호수공원을 가족이 함께하기 좋은 여름 여행지로 추천했다. 북적이지 않은 도심공원에서 가볍게 산책하며 여름꽃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이 밖에 ▲전국 최대 규모 스트리트댄스 경연대회 배틀라인업을 축제로 브랜딩한 스트릿댄스 페스타 ▲맥주와 DJ공연을 함께하는 도심속 바캥스 비어페스트 광주 ▲해외뮤지션이 참여해 세계 음악 다양성을 선보이는 ACC월드뮤직 페스티벌 등 다양한 축제가 여름밤을 달군다.

조선주 기자

‘광주다움 통합돌봄’ 포럼 광주시의회, 공동개최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관련 단체들과 포럼을 공동개최한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13일 광주시,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공동으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시 통합돌봄의 새로운 장을 펼쳐다’라는 주제로 한국사회복지학회 정책포럼을 열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공유하고 향후 국가 돌봄정책의 새로운 비전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가 ‘통합돌봄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고, 석 교수는 특히 선행 연구와 다른 국가의 경험을 통해 통합돌봄의 성공조건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미정 광주시의회이 좌장을 맡은 주제발표에서는 최재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 ‘커뮤니티케어 4년의 경험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과의 이인희 안산시 지역통합돌봄팀장의 지역 통합돌봄 사례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 김수안 강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을 폐널토론회에서는 방석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 권현정 영산대 교수 등의 개별토론회가 이어진다.



김영록 지사, 청년 핵심리더들과 ‘소통간담회’

국 100년을 책임질 청년 핵심 리더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가 지난 10일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열린 ‘도지사-청년 소통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전남도 제공

김영록 지사 “지방시대 청년의 힘과 지혜 모아 달라”

전남도 ‘제2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 개강

김영록 지사는 지난 10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맞아 청년의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목포 김대중노벨 평화상기념관에서 열린 ‘제2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 개강식에 참석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청년의 역할을 이같이 강조했다.

전남도는 민선8기 도지사 역점시책으로 대한민국 100년을 책임질 청년 핵심리더 육성을 목표로 ‘호남 청

년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출범식과 함께 제1기 교육생 89명을 배출했다. 수료생 전원이 ‘청년 서포터즈단’으로 위촉돼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2기 아카데미 개강식을 했다.

개강식에는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조옥현 교육위원장, 박문욱 도의원, 목포부시장 등 150여 명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개강식에서 청년들에게 전남도정 방향과 전남의 잠재력을 소개하고, 소통간담회를 진행했다.

박재강 교육생 대표는 “호남 청년 아카데미를 통해 청년의 역할과 청년 리더에 대해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다”며 “청년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소통간담회를 주재한 김영록 지사는 “지역 고유의 강점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경쟁력을 키우고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맞아 청년의 힘과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전남,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 29곳 선정

‘전국 최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국비 435억원’ 확보

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전국 최다 선정되면서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134개 마을이 응모한 가운데 농식품부는 대면평가를 통해 108곳을 선정했다.

전남에선 29곳(전국 26.8%)이 선정돼 국비 435억 원을 확보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민이 직접 마을의 필요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정부가 지원

하는 상향식 공모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빈집·노후주택 정비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담장·축대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또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비롯한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지원해 주민 참여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다. 올해 선정된 29개 마을은 2024년부터 4년간 마을 한 곳 당 15억원 내외의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도기 기자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직접 체험하세요”

전남도, 보급지원...12~13일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서

전남도는 12일부터 2일간 전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23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하는 이번 전시회에선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자신에게 맞는 보조기기를 선택하도록 상담과 신청 안내를 함께 지원한다.

전시회는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전문업체 25개 기업이 참여해 시각장애 58종, 지체·뇌병변 장애 19종, 청각·언어 장애 23종 등 총

100여종의 제품을 소개한다.

전시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한다.

전남도는 장애인의 정보통신 기술 접근성 강화를 위해 특수 보조기기를 저렴하게 보급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하고 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온라인 신청 누리집이나 시·군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오는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장성 백양사



신안 퍼들교



순천 순천만국가정원



목포 해상케이블카

너도, 나도, 남도






남도여행길잡이

검색



